제469호 天主教 全州 教區報 1981. 11. 15 (1)

연중 제33주일

기도서 P. 477 A해

제1독서(잠언 31, 10—13) 19—20. 30—31)
제2독서(데 살 전 5, 1— 6)
복 음(마 태 25, 14—30)

숲정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 론

평신도상(平信徒像)

조 성 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평신도 고유의 역할이 오늘에 절대 필요함은 새삼 재론할 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초세기 교회에서처럼 활발하고 광범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고 열네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에 즈음하여 잠깐 오늘 우리들의 신자상을 반성하며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전에 사회인이며 생활인입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의 환경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고 활동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는 넓게는 하느님의 나라, 좁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계 한가운데에 가장 잘 현존시키는 주역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신자 아닌 다른 사회인이나 생활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의 이치입니다.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 적응만 하는 소극적인 사회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생활인이어야 합니다. 혼탁과 격변하는 사회에 사는 크리스챤으로서는 변동 혼탁의 물줄기에 그저 휩쓸리거나 그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이웃을 멀찌감치 관망하고만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그 물줄기 속에 뛰어들어 물줄기를 헤치고 나가 휩쓸려가는 이웃에게 진로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타와 자기중심, 파벌, 불신의 폐쇄사회에서 대화가 있고, 양보가 있고, 협동이 있는 개방사회로 발전하는데에 참다운 친교를 보여주는 크리스챤 공동체의 모습보다 더 훌륭한 이상이 어디 있겠읍니까? 권위를 위한 권위주의, 남의 자유를 억압한 대가로 누리는 자기자유, 형식주의, 체면주의, 의례주의, 배금주의, 은밀주의, 살인주의…… 도무지 방향감각을 상실한듯한 이런 사회에다 참된 사랑과 성실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느님을 증거하는 양심과 죄의식을 간직하고 있는 크리스챤 이외에 누구에게 기대하겠읍니까?

새 시대는 사람의 힘으로만은 이룩할 수 없읍니다. 양심으로 승복하지 못하면서 따르는 사회는 그 근본이 항상 거짓과 불신에 찌든 사회일 수 밖에 없읍니다. 새 시대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따르면서 진리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룩되는 그 시대 그 사회가 바로 진정한 새 시대 새 사회입니다.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도래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구 평협회장)

왜 그리 되었는가?

어머니의 날은 있어도 아버지의 날이 없다.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본취지야 다른데 있지만, 장난스러운 말로 1년 삼백예순날이 모두 아버지의 날이기에 그렇다고 한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미루어 그럴듯한 말이다. 한국교회는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전(前)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정작 평신도 자신들은 그날의 의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듯 싶다. 주어진 원고에 따라 평신도가 강론이나 한차례 하면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평신도 축제의 날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일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평신도의 공의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평신도의 위치가 높이 부각된 공의회였기 때문이다. 사실 평신도들이란 「세속에 살면서 세속일에 파묻혀」 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가 살고 있는 세속에서 「현세질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구원성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은 평신도 고유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은 또한 교회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평신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보자. 혹시라도, 신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회 전례의 구경꾼 노릇이나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교회 운영을 돕는답시고 세금내듯이 봉헌하고 있지나 않는지? 세상 구원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고, 내가 해야할 몫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주인의식을 가져본 적은 있는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면, 왜 그리되었는가를 찾아보자. 이것야말로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겸손하게 살펴보고 정직하게 고백하자. 그리고 고쳐 나가자.

숲정이 산책

□ 평신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김 순 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의 사도적 활동을 더욱 활발히 수행하기를 희망하며 큰 관심을 기울인다" 고 선언했다(평신도 교령 1항 참조). 이는 다양화된 현대사회 속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 더욱 지대해졌음을 한 마디로 요약 강조한 것이리라. 이에 잠시 우리의 오늘을 살펴 생각해 본다.

첫째, 본당 공동체 안의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곳은 숭고한 예언직과 사제직, 왕직이 동시에 수행되는 우리들 곳집, 그러기 신앙과 수련의 터전인 것이다.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전례(미사) 봉헌은 물론이요 각종 회합과 교리반 참례 등은 모두 우리들 저 성직수행이 아닌가? 기쁨을 머금고 다시 세속에로의 엄숙한 파견을 수임하는 산실(産室), 복음의 산파됨을 명심해 보자.

둘째, 가정 속의 우리들. —여기야말로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첫 기착지요 전진기지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으로 가득차 성화된 은총의 요람이 될 때에, 사랑과 진리는 절로 평화되어 온 누리 만 형제속에 가득 펴질 것이다. 서로의 위함과 북돋움 속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단란한 가족, 이는 곧 그 자체가 천국(사랑)이요 복음을 전하는 작은 교회일 것이라 감히 상상해 본다.

셋째, 사회 안에서의 평신도. 직장과 직업은 하느님이 맡겨주신 소임 아니던가? 무엇을 위한 노동이며 어떤 삶을 위한 생계부양인지를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로 이끌라는 지상명령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일한다 말해 무방하리라.

오늘에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을 재삼 함께 음미해 보자.

(중앙본당 선교위원장)

평신도는…

장 다 리 아 수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여의도 신앙대회에 참가한 후 평신도들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성대하게 대회를 끝마쳐 많은 사람의 마음에 신앙의 열기를 불어넣어 준 것을 보고 그동안 평신도들의 활동이 무척 많이 성장했음을 느껴 놀랍고 기뻤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노동이나 직업·가정·문화·사회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활화할 의무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의·식·주 및 경제·교육 등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이 하느님께 받은 재질을 온전히 개발하도록 조언하며, 노인들이 가족에서 제외됨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현시대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어른들은 더욱 신앙과 생활을 모범되게 하여 자녀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되어야 하겠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인간의 집단이므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며, 그 공동체 육성을 위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성직자나 수도자의 개인적인 실수나 나약함, 부족함 등을 발견할 때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실망해 버리는것 같다. 신자들은 수도 성직의 어려움을 좀더 너그러히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오히려 자신의 겸손으로 보완하면서 그들의 나약함을 위해 더 큰 기도를 바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안에서부터 사랑과 일치를 나누고 보일 때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사도 2:47)는 성경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함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위로 아래로 위하고 아끼면서 사는 평신도, 그리고 서로 존경하며 스스로 교회를 꾸려갈 새 평신도상을 오늘 맞아 한번 다시 꿈꿔본다.

"착각의 커트라인"

박 종 상 신부

항간에 이르기를 "착각은 자유, 낙제 점수가 없다"고 한다. 세태를 반영하는 말인듯 하여 평신도 날에 몇가지 생각해 본다.

옛 어른의 말씀에 "하늘이 백성을 낳은 것은 임금을 위함이 아니요,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함이니라"〈天之生民非爲君, 天之立君以爲民〉 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나 성직자들 내지는 그 어느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임이 분명하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성조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셨으며 〈히브리서11장 참조〉, 직책의 다양성을 통하여 옹호하신다. 그러기에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특수한 개인적 소명을 밝히는게 아닐까?

주어진 상황, 주어진 소명을 통하여 좀더 성숙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게 우리다. 더 나은 생활, 더 선한 생각, 이에 뒤따르는 행동을 찾으려 배우고 힘쓴다. 그러나 착각은 이를 저지한다. 신앙의 차원에서 착각은 완전으로 부르고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모호하게 하며 어물쩡한 행동을 가지도록 한다. 이래도 낙제점이 없나?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며, 거스리는 자는 망하리라" 〈順天者存, 逆天者亡〉는 성현의 말씀도 퇴색되는 세상이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일리는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떵떵거리지 않는가? 이때에는 착각에 낙제점이 없고 자유로울게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묵시록 3장 16절)고.

그리스도 교인에게는 착각도 낙제점이 있다.

(성심여중·고 종교감)

VAT Ⅱ. 평신도 교령 33

…모든 평신도들에게 간청하는 바이니, 지금 이 시각에도 그대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들을 움직여 주시는 성신께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속히 응해 주기 바란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 호소가 그대들에게 향한 것으로 깨닫고, 이 호소를 마음넓게 속히 받아 들이기 바란다.

주께서는 당신이 가실 모든 도시와 장소에 새로이 평신도들을 파견하신다(루까 10, 1). 그것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끊임없이 적응되어 가야 할 교회의 동일한 사도직의 여러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주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그대들의 노고(勞苦)가 주 안에서 보람없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항상 주의 성업에 힘쓰기를 바란다(꼬린 전 15, 58).

ECCLESIA

□ 82년 교구 사목설계, 지침 마련

지난 11월 10일 교구 교육 및 공소 사목 위원들과 특별히 위촉된 15명의 특별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새해 교구사목의 중대한 방향 제시와 지침 마련에 온 관심과 지혜를 모았다.

본 위원들은 「본당 공동체의 해」인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우선 사목국에서 기초한 지침시안을 검토, 수정 보완하고 각 본당과 제 단체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금번 회의에서 결의된 내년도 교구 사목지침을 보면 ① 지역 공동체 육성강화, ② 본당 전례의 활성화, ③ 애덕실천의 조직화를 요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교구단위의 연구 자료제공 및 지원과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배려, 그리고 각 본당 제 단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수립,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 금년에는 교구단위 연중행사 계획표 제시를 않기로 했다.) 본 지침안은 앞으로 참사회를 거쳐 12월 중에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다.

뜻을 같이한 제 연구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안(案)이 두루 온 교회에 펼쳐지길 빈다.

□ 금마, 「레지오 마리에」 Pr. 신설

본당 승격 7개월여, 옛 문화의 번성에 어금지금한 성전 신축 계획을 세우기도 벅차지만 전교 열의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동정녀의 모후」 쁘레시디움을 탄생시켰다.

금마(주임신부 김반석) 본당은 11월 15일부로 4공소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의와 신심을 나누고 북돋우면서 레지오의 구심점인 '마리아'와 함께 선교의 일선에 서기로 결의를 보았다.

복음이 받아 들여지고 생활화 되어 축복 가득한 공소 마을들이 이뤄지길 빌면서 많은 형제들의 가입을 바란다.

□ 여의도 상공의 「십자가 형상의 빛」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의 감격과 여운은 쉽게 떠나질 않는다. 많은 화제꺼리 중에도 김대건신부 유해가 입장할 때 나타난 '십자가형의 빛'은 목격자가 많고 사진으로 남게 됐다.

교회측에서는 아직 어떤 공식 표명없이 '교구의 판단을 거쳐 「바티칸」의 최종 심판을 받아야 여부를 말할 수 있겠다.'고만 얘기하고 있다.

「천주교 중앙 협의회」에서는 교우들의 성화와 요청에 의하여 각 본당으로 당일 카메라가 잡은 십자가 형상의 사진을 1매씩 보내 주었다. 관심있는 분들은 본당신부님을 통하여 그 감격의 장면을 다시 새겨보시거나 동아일보 11월 5일자 6면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81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 **행사일시** : 1981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 전주 중앙 천주교회

□ **행사내용** : 제1부 추수 감사미사—사제단 공동 집전, 제2부 농민대회—우리의 주장과 다짐, 제3부 농민축제—농악·탈·창 등 행사

□ **참가요령** : *대상—농민, 성직자, 수도자, 신자, 그외 관심있는 모든 분
*참가자는 11월 20일 오전 10시30분까지 전주 중앙천주교회에 도착하여 입장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증정 *생산비 조사원은 별도 기념품 증정 *자세한 것은 전주교구청(③5098)에 문의

교우여러분을 가까이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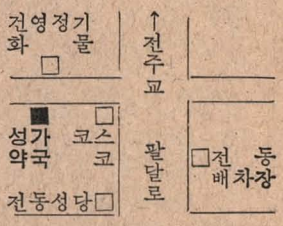
양 약 · 한 약

성 가 약 국

전화 ② 5 8 3 5

약사 권요셉(성윤)

(전동 건영정기화물 앞)



전기 온수기 까스렌지 및 시설
까스 온수기 각 종 씽 크
백 곰 표 씽 크 주 방
(東南綜合 씽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 9 0 0
金 樂 均(요셉)

주단·포목(혼수·회갑옷갑)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텐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 화 ② 2 5 1 3
한 철 재(비오)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축! 영명 : 오 기 순(알베르또)신부님—11월 15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1. 사무장 연수희 : 11월 17일~18일, 접수—오후 2시
2.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11월 19일〈목〉 오후 6시
장소—센타 회의실, 대상—군종후원 회원, 주례—정승현 신부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유 종 환
보좌 신부 박 인 호
사도 회장 김 병 구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착한 사마리아인회 : 11월 18일〈수〉 오후 2시
3. 병자방문 : 11월 17일〈화〉 오전 10시
※ 병자를 모시분은 사무실에 신고하세요
4. 본당 위령의 날 : 11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 아침미사 없읍니다. 봉헌금 있읍니다
5. 예비고사 학생을 위한 미사 : 11월 23일〈월〉 오후7시 30분 이 미사에 학부모, 가족동반 참석 하세요
6. 사제 위령의 날 : 11월 24일〈화〉 오후7시30분 어린양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사제를 위해 모두 참석하여 기도합시다. 아침미사 없읍니다. 봉헌금 있음
7. 농민회 추수감사 미사 : 11월 20일〈금〉 10시 30분 중앙성당, 모두 참석 합시다
8. 4지구 성가경연대회 : 11월 15일〈일〉 오후2시, 본당
□ 지난주 봉헌금 : 468,040원
감사헌금 : 김모니카 5,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이 홍 재

1. 축! 견진성사 : 22일 오전 10시, 견진교리 16일부터 매일 저녁 7시,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람
2. 사도회 임원개편 : 사도회장—이홍재, 부회장—노인석, 선교부장—김종표, 전례부장—박종길, 봉사부장—모보일, 재경부장—유종엽, 부녀부장—박규선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읍니다
3. 베소라 성서강의 : 17일〈화〉 저녁 7시, 주제 : 과월준비—유대 건국제— 마르꼬 14 : 10~16절 중심으로
4. 애령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데살로니카 전후서, 디모테오 전후서, 디도서 전체
6. 교무금 납부의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11월중에 교무금을 완납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247,45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 주셔요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 미사
2. 예비자 교리 : 일요일 공식미사 후
많은 예비자 인도바랍니다
3. 견진자 특별교리 : 23일부터 일주일간 빠지지 마시고 참석바랍니다. 영세증명서
4. 성모회 월례회의 : 할머니들 꼭 참석하세요
5.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신자의 본분을 지킵시다. 예비자 인도합시다
6. 상임위원회 모임 : 사도회 임원님들 꼭 참석하셔요
예산안 심의 : 22일 공식미사 후
7. 약속하신 교무금은 이달중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8. 10월말 결산액 : 수입 18,074,437원
지출—16,462,336원 잔금—1,612,101원
□ 지난주 봉헌금 : 373,685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김 희 남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총회 : 22일 공식미사 후, 강당에서
참석자—사도회임원, 고문, 감사, 반회장, 성우회원 각 신심단체장(L.M, 애령회, 부녀회, 자모회, 성가대, 청년회, J.O.C, 학생회, 교리교사회)
필히 참석 바람
2. 평신도 주일 : 오늘 특별헌금 있음
평신도강론—양규철 부회장(공식미사 강론—주교님)
3. 22일 강론 : 입종을 감사님(본당운영 및 예산에 관한 강론)
4. 대입 예비고사 응시자를 위한 합동미사
11월 23일 저녁 7시30분
5. 다음주 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조데레사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 314,0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할머니회 : 공식미사 후
2. 성당의자 방석 기증 : 박경환(마태오) (경비 50만원)
3. 가정방문 : 10반(17일~18일), 11반(19일~20일)
4.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매주 화요일 7시30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국민학생)
5. 성서 교리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한기 ②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 184,735원 교무금 : 178,1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수·유③9567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성모회 월례회 : 11월 15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식 : 11월 22일 오전 9시30분
3. 성서연구 : 청년 남—녀모임 매주 화요일 밤 7시30분 뜻있는 형제자매님 참석바랍니다
4. 유치원 그림잔치 : 11월 14일~15일
개원 5주년 기념행사로 귀엄둥이 어린 손길으로 이루어진 그림및 작품을 전시하오니 관람해 주세요
5. 성가대원 조직 : 11월 22일 공식미사 후
연령 구별없이 남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 성서 40주간 모임 : 11월 24일 오후 2시30분
준비물—신·구약성서, 성서 40주간 필기도구
7. 차주 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①박대규 ②남상용
□ 지난주 봉헌금 : 290,225원

(전동)

전화 ②3222번 ⑤6208번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박 병 준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성화회 : 공식미사 회
2. 꼬미시움 : 오후 2시
3. 가정방문 일시 : 11월 17일~20일—동완산·서완산동
24일~27일—풍남동·기타동
4. 연말이 가까와졌읍니다. 미납된 교무금 완납하시요
5. 다음주(22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헌재 ②이시영
공식미사 : 해설—양현동, 독서—①이주철 ②백종흠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장대원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420,86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견진성사 : 56명, 축하합니다
2. 꾸리아 결정사항
① 파티마·덕진 합동 꾸리아회합—12월 회합을 마지막으로 함
② 82년 1월 꾸리아—덕진본당에서
③ 꾸리아 분리(덕진·파티마)—꼬미시움에 신청
3. 성당 청소 배당 : ① 첫째주일·첫금요일—구세주의 모친Pr. ② 둘째주일·2금요일—예언자의 모후Pr. ③ 세째주일·3금요일—자비의 모후Pr. ④ 네째주일·4금요일—파티마의 모후Pr. ⑤ 다섯째주일·그외날—사도들의 모후Pr.
4. 로사리오의 밤과 견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8,285원 교무금 : 82,000원

✽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7440